

Foreword

This is the third volume of our Journal, which is the only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about Korea in Poland, published by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stitute of Linguistics at Adam Mickiewicz University in Poznan. We wish to express our appreciation to each of the contributors to this volume, who took their time and effort to help us in developing Korean studies in Poland.

This volume contains papers devoted to Korea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politics and culture – almost all the fields of Korean studies.

Anna Borowiak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ttributes in Korean and Polish languages. She suggests the methods of classification of attributes in both languages. She tries to find out to which extent typolog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Polish are reflected in the properties the attributes possess (and according to which they can be classified).

Sunghee Hong explores the new approaches to Korean poetry under dictatorships from late 1960s to 1980s in terms of ‘authenticity of snobbism’. She focuses on the double positioning of Korean literature as the accuser and the accused. She suggests a new way of reconciling the opposites rather than the way of dichotomy. **Seoyoon Choi** analyzes the paradox and irony in Kim Suyong’s poetry under the authoritarian Park Chung-hee regime in 1960s. She suggests a new way of reading his poetry arguing that the paradox of self-negation and self-reinvention can result in a sort of new ‘love’ and ‘hope’. **Mansu Kim** in his paper explains the patterns of Korean’s narrative based on the ‘rule of three’ in which the weakest finally beats the strongest. He points out that the ‘rule of three’ of Korean narrative reflects the geopolitical location of Korea at the collision point of the strong neighbouring countries through the analyses of the stories of General Yusin Kim and Great Monk Samyeong. **Yuliawati Dwi Widyaningrum** deals with how Korean teenagers represented in Indonesian teenage literary works are influenced by ‘Korean Wave’. She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relationship with peer groups and the context of education. **Seyon**

Jo analyzes the movie *Spirits' Homecoming* directed by Jeong-nae Cho which reveals two Korean “comfort women’s” lives, anguish and mourning as a result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World War II. She focuses on how Korean viewers reacted through mourning presented in the movie based on Derrida’s concept of mourning. **Kang-sok Cho** shows three perspectives on Korea represented in foreigners’ travel records in early 1900s. He examines the travel records of Jack London, Georges Ducrocq, and E. Burton Holmes to explain three conspicuous aspects on Korea. **Yeong-mi Lee** deals with the book *Korea: Klucz Dalekiego Wschodu (Korea: Key to the Far East)* (1905) written by a Polish writer Waclaw Sieroszewski. She tries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KKDW* considering the history of Western literature on Korea. She focuses on the favourable attitude of the book toward Korea compared with other books written by foreign visitors to Korea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Grażyna Strnad presents complex problems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system of South Korea. She focuses on the roles and participation of political leaders from the 1980s to the late twentieth century. She argues that political leadership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was still authoritarian,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cultural heritage of Confucianism in politics. **Huang Xiuzhi** examines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Korean Joseon dynasty and the Chinese Ming dynasty in the late 16th century. He analyzes the problems of political relations and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focusing on the book *Haidongzhuguoji*.

The main goal of our Journal is to develop Korean studies in Poland. We will do our best to achieve it. We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all of our colleagues, especially from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Inha University and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Institute of Linguistics of Adam Mickiewicz University.

03 June 2017
Kyong-geun Oh

서문

우리 학술지는 폴란드에서 유일한 한국에 관한 국제학술지로서 포즈난 소재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의 언어학연구소 한국학과에 의해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이번 제 3 권이 발간되기까지 논문을 보내주신 분들과 기꺼이 심사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폴란드에서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아낌없는 도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호에는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문화 등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한 논문들이 실렸다.

Anna Borowiak 은 한국어와 폴란드어의 관형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논문은 각각의 언어에서 관형어 분류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와 폴란드 간의 유형적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그 분류의 기준의 될 수 있는 관형어들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홍성희는 ‘속물의 진정성’이란 주제로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독재정권 하의 한국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저자는 한국문학의 ‘비난하는 자’와 ‘비난받는 자’로서의 동시적-이중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러한 이분법적인 시각을 초월하여 두 상반된 것들 간의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서윤**은 196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하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역설과 아이러니를 분석하였다. 그는 ‘자기부정’과 ‘자기 재창조’라는 역설이 ‘사랑’과 ‘희망’의 새로운 언어로 탄생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김수영의 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만수**는 그의 논문에서 가장 약한 자가 결국엔 강자들을 제압하는 ‘3의 법칙’에 근거하는 한국의 서사형식들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한국 서사들 속의 ‘3의 법칙’은 오래 전부터 주변의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고, 김유신 이야기와 사명대사 이야기의 분석을 통해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 **Yuliawati Dwi Widyaningrum**은 최근 ‘한류’의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 청소년 문학에 새롭게 등장한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쓴 작품들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성격적 특성을 성장기 청소년 심리학, 동년배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적 맥락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조세연**은 2차대전 시 ‘일본군대의 성적노예’였던 두 ‘위안부’ 여성의 삶과 고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도를 보여주는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영화에서 재현된 애도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 그리고 데리다의 이론에 근거한 ‘애도’의 개념 분석에 집중하였다. **조강석**은 1900년대 초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여행기록 속에 묘사된 한국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을 논하였다. 저자는 한국에 대한 뚜렷이 구별되는 그 세 가지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Jack London, Georges Ducrocq, E. Burton Holmes 의 여행기록을 각각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영미**는 1905년 폴란드 작가 Waclaw Sieroszewski가 쓴 책 <Korea: Klucz Dalekiego Wschodu>(한국: 극동의 열쇠)를 고찰하였다. 그는 당시 서양인들이 쓴 한국에 대한 책들 가운데 **KKDW**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고, 20세기 초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저작들과 비교하여 이 책에서 발견되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 논하였다.

Grazyna Strnad는 한국의 민주적 정치체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특히 1980년대에서 20세기 후반까지의 정치지도자들의 역할과 참여에 주목하였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었던 것은 정치에서 유교적 문화유산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Huang Xiuzhi**는 16세기 후반 한국의 조선왕조와 중국의 명왕조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고찰하였다. 그는 당시 <해동제국기>로 인해 발생한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갈등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집중 분석했다.

우리 학술지가 지향하는 바는 폴란드에서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계속된 노력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번 호가 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그리고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교의 언어학연구소와 한국학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7년 6월 3일
오경근